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2024년 공동주택 정책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서대문구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

I	연구회 소개 및 활동 개요	5
1-1.	공동주택정책연구회 소개	7
1-2.	2024년 연구활동 개요	10
1-3.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11
II	연구활동별 결과 보고	13
2-1.	노원구 현장방문	15
2-2.	전문가 교육	23
2-3.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	27
III	활동 후기	41
3-1.	강민하 의원 (대표)	43
3-2.	이진삼 의원 (간사)	44
3-3.	서호성 의원	45
IV	보도자료	47
4-1.	2024.05.29.(수) 배포	49
4-2.	2024.07.05.(금) 배포	51
4-3.	2024.10.15.(화) 배포	53
4-4.	2024.12.18.(수) 배포	55

1. 연구회 소개 및 활동 개요

1-1. 공동주택정책연구회 소개

1-2. 2024년 연구활동 개요

1-3.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1-1. 공동주택정책연구회 소개

1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공동주택정책연구회

- ☐ 단체명 : 공동주택정책연구회
- ☐ 소속의원 : 강민하(대표), 이진삼(간사), 서호성
- ☐ 관련근거 :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 연구활동 계획(당초) ※ 심의반영금액은 보고서 11page 정산내역 확인 바람.

연구 내용	주제	서대문구 공동주택 정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목적	- 공동주택 관련 법규, 관리규약 준칙을 학습하여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기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및 관련 위원회의 역할, 관리 방법 등에 대해 이해 - 서대문구 공동주택 현황 및 관련 지원정책을 분석하여 의무단지 및 비의무단지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파악 - 서대문구 공동주택 협의회, 자치법규 제·개정의 필요성 진단 및 정책 개선방안 모색
연구 활동 기간		2025년 3월 ~ 2025년 12월
연구 활동비 책정액 (2024)	총 액	금이백칠십사만원(₩2,740,000)
	산출 내역	- 강사료 : 720천 원 (=360,000원×2명) - 관계자 간담회비 : 600천 원 (=300,000원×2회) - 전문가 자문비 : 300천 원 (=150,000원×2명) - 다과 및 소모품 구입비 : 620천 원 (=155,000원×4회) - 활동보고서 제본비 : 500천 원 (=500,000원×1식)

□ 설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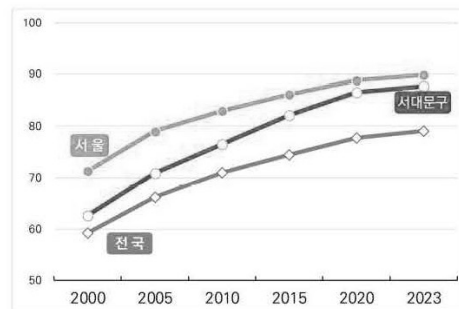
- 서대문구 공동주택 정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설립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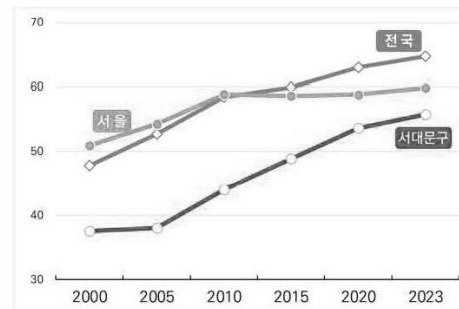
[표] 서대문구 공동주택 및 아파트 비중 추이 (단위:%)

연도	공동주택 비중			아파트 비중		
	전국	서울	서대문구	전국	서울	서대문구
2000	59.3	71.4	62.7	47.7	50.9	37.5
2005	66.2	79.1	71.0	52.7	54.2	38.0
2010	71.0	83.0	76.6	58.4	58.8	44.0
2015	74.5	86.2	82.2	59.9	58.6	48.8
2020	77.8	88.9	86.6	62.9	58.8	53.6
2023	79.2	89.9	87.7	64.6	59.8	55.7

서대문구는 다양한 유형의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최근 공동주택 및 아파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지역 내 주거 형태가 점차 공동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공동주택이 주민 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 관련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서대문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에 비해 여전히 공동주택 비중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림] 공동주택 비중 추이



[그림] 아파트 비중 추이

특히, 지역 주민들로부터 공동주택 관련 문제 해결과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주민들은 관리비 투명성 부족, 노후화된 주택의 유지보수 문제,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복잡한 행정 절차 등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대문구의회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발전시키기 위해 2024년 2월, 강민하 의원을 대표로 이진삼, 서호성 의원과 함께 ‘공동주택정책연구회’를 설립하였음.

② 서대문구 공동주택 현황

□ 공동주택 관리현황

(2023.12.31. 기준)

구 분	계	의무관리단지	비의무관리단지
총 단지수	129	68	61
총 세대수	50,433	45,683	4,750

□ 공동주택 관련 법규

○ 관련 법령

- 주택법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서대문구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서울시 조례 등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2. 2024년 연구활동 개요

□ 월간 계획

월	당초 (안)	수정 (안)
2월	연구회 활동 기획 회의	의원연구단체 심의
3월	전문가 초청 강연	연구회 활동 기획 회의
4월	연구회 정기모임	
5월	관계자 간담회	노원구 현장방문 및 간담회
6월	연구회 정기모임	제1회 전문가 초빙 교육
7월	전문가 자문회의	
8월	연구회 정기모임	
9월		
10월	관계자 간담회	제1회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
11월		제2회 전문가 초빙 교육 제2회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
12월	연구회 활동 평가 회의	제3회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 제4회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

1-3.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 심의서 제출 계획

구 분	산출 내역	금 액
합 계		2,740천 원
강사료	360천 원(일반1급, 2시간 기준) × 2명 =	720천 원
관계자 간담회비	30천 원 × 10명 × 2회 =	600천 원
전문가 자문비	150천 원(2시간 기준) × 2명 =	300천 원
다과 및 소모품 구입비	155천 원 × 4회 =	620천 원
활동보고서 제본비	500천 원 × 1식 =	500천 원

□ 심의 배정액

구 분	산출 내역	금 액
합 계		3,240천 원

□ 최종 지출내역

구 분	산출 내역	금 액
합 계		3,184,600
강사료	490천 원 1명, 480천 원 1명(2시간 기준) =	970,000
관계자 간담회비	10명 × 5회 =	698,900
전문가 자문비	100천 원(1시간 기준) × 4회 =	400,000
다과 및 소모품 구입비	다과 × 6회 =	615,700
활동보고서 제본비	행사 1회, 최종보고서 30부 =	500,000

□ 세부 내역

연번	사용일	지출구분	적요	사용처	금 액
합 계					3,184,600
1	2024-05-21	노원구 현장방문 간담회	간담회비	로덴드론	54,900
2	2024-06-20	제1회전문가 교육	다과비	GS25 서대문구청점	15,000
3	2024-06-21	제1회 전문가 교육	다과비	카페폭포	52,000
4	2024-06-24	제1회 전문가 교육	출력 제본비	태광애드컴	53,900
5	2024-06-25	제1회 전문가 교육	강사료	이기남	490,000
6	2024-10-10	제1회 찾아가는 간담회	간담회비	계림원	165,000
7	2024-10-10	제1회 찾아가는 간담회	다과비	연희양과점	100,000
8	2024-10-10	제1회 찾아가는 간담회	자문비	박기권	100,000
9	2024-10-07	제2회 찾아가는 간담회	간담회비	닭한마리	130,000
10	2024-10-07	제2회 찾아가는 간담회	다과비	연희양과점	100,000
11	2024-10-07	제2회 찾아가는 간담회	자문비	박기권	100,000
12	2024-10-08	제2회 전문가 교육 다과비	다과비	비밀	248,700
13	2024-10-08	제2회 전문가 교육 강사수당	강사료	진미윤	480,000
14	2024-12-10	제3회 찾아가는 간담회	자문비	박기권	100,000
15	2024-12-10	제3회 찾아가는 간담회	간담회비	삼호선차이나	149,000
16	2024-12-16	전체 활동보고서	출력 제본비	북청사	446,100
17	2024-12-19	제4회 찾아가는 간담회	간담회비	대성집	200,000
18	2024-12-19	제4회 찾아가는 간담회	다과비	알레스구떼	100,000
19	2024-12-19	제4회 찾아가는 간담회	자문비	박기권	100,000

Ⅱ. 연구활동별 결과 보고

- 2-1. 노원구 현장방문
- 2-2. 전문가 교육
- 2-3.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

2-1. 노원구 현장방문

①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운영 사례

□ 노원구 현황

- 구청장 : 오승록
- 인구수 : 497,064명 (서울시 자치구 4위) ※ 2024년 3월 기준
- 면적 : 35.55km² (서울시 전체 면적의 5.85%)
 - 주거지역 39.2%, 상업지역 1.7%, 녹지지역 59.1%
- 행정구역 : 총 19개동 (행정인력 1,665명)
- 주택 : 205,226호
 - 아파트 163,757호, 단독주택 27,830호, 연립주택 13,639호



〈참고〉 서대문구 현황

- 구청장 : 이성현
- 인구수 : 305,986명 (서울시 자치구 18위) ※ 2024년 3월 기준
- 면적 : 17.61㎢ (서울시 전체 면적의 2.91%)
 - 주거지역 87.3%, 상업지역 1.6%, 녹지지역 11.1%
- 행정구역 : 총 14개동 (행정인력 1,407명)
- 주택 : 120,408호
 - 아파트 54,545호(45.4%), 단독주택 10,499호, 연립주택 5,516호, 다세대 28,909가구, 다가구 20,939가구

□ 현장방문 사유

- 아파트 협의회 구성 선진 사례를 학습하고, 운영 및 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서대문구 공동주택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

□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 기능: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문화 확산 및 활동 참여
단지 내 재해예방 및 재난구조 활동 참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제도개선, 교육, 홍보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기타 협의회가 사회단체로서의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 구성: <회원> 의무관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협의회> 19개 행정동
<지역협의회> 월계, 공릉, 하계, 중계, 상계1, 상계중앙 / 6개
※ 가~바 선거구와 다소 상이
<구협의회> 지역협회[임원 또는 동협의회 회장
- 운영: 분기별 정기회의 운영,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 의결사항: 세부운영규칙의 제·개정, 임원 선출 및 해임
사업계획과 예·결산의 승인
지역협의회 회칙에서 정한 사항과 기타 협의회 공통 추진사항

□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 조례 연혁

- 2018년 2월 조례 제정

- ▶ 발의 의원: 최윤남(대표)·변석주·오한아·김승애·손명영·주연숙
- ▶ 주요 내용: 회원의 자격·임기, 회장의 직무, 회의 운영, 행·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등

- 2020년 6월 조례 전부개정

- ▶ 발의 의원: 최윤남(대표)·강금희·변석주·임시오·주희준·이미옥·김태권·서기팔·이영규·김선희·안복동·손영준·주연숙·여운태
- ▶ 주요 내용: 회원 자격 및 임원 선출사항, 지원절차 등 규정

- 2022년 1월 조례 일부개정

- ▶ 발의 의원: 이미옥
- ▶ 주요 내용: 임원진 임기 및 사무국장의 자격요건 변경

□ 현장 사진



□ 2024년 노원구 공동주택 관련 예산

○ 단위사업: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세부사업명	예산
계	2,253,999천 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1,008,885천 원
아파트 동대표 역량강화	29,610천 원
아파트 힐링 한마당	51,250천 원
영구 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관리비 지원(국고보조)	1,098,549천 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2,905천 원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	2,800천 원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 지원사업	60,000천 원

○ 세부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통계목	산출근거명	산출근거식	예산액
	소계		1,008,885천 원
사무관리비	1)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수당	70천 원*6명*1회	420천 원
사무관리비	1)우수단지선정 심의위원회 수당	70천 원*3명*1회	210천 원
사무관리비	1)공동주택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3,011천 원
사무관리비	2)공동주택지원사업 홍보물	1,511천 원	1,511천 원
사무관리비	2)공동주택지원사업 책자	1,500천 원	1,500천 원
사무관리비	1)외부전문가 자문료	100천 원*43회	4,300천 원
사무관리비	1)주민알림판 유지 보수	100천 원*30개	3,000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공동주택관리 예방업무 추진	2,500천 원	2,500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공동주택 현안업무 추진	3,000천 원	3,000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아파트협의회 분기별 회의	500천 원*4회	2,000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도시계획국 주요업무 추진	5,000천 원	5,000천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45,444천 원	45,444천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아파트협의회 지원	40,000천 원	40,000천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공동주택 지원사업	900,000천 원	900,000천 원

<출처> 2024년 노원구청 예산서

- 노원구는 공동주택 관리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 총 2,253,999천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1,008,885천 원)은 주요 사업으로, 아파트협의회 분기별 회의(2,000천 원)와 아파트협의회 지원(40,000천 원)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45,444천 원)과 공동주택 지원사업(900,000천 원)이 주요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음. 이 사업들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② 노원구 현장방문 활동

□ 개요

아파트 협의회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원구를 방문하여 관련 조례 및 지원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노원구의회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 일시: 2024년 5월 21일(화) 09:00~16:30

○ 장소: 노원구청, 노원구의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 참석자: 총 8명

연구회 소속의원(3명), 공동주택지원팀(2명), 정책지원관(2명), 주무관(1명)

시간	현장 시찰 일정	비고
09:00~10:00	서대문구의회 집결 및 노원구청(노원구의회) 이동	
10:00~11:30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관계자 간담회 ·대상: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위원 4명,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 공무원 3명, ·내용: 협의회 운영방식, 지원정책 등 소개 및 질의응답	
11:30~13:00	오찬 겸 소통 간담회 ·대상: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위원, 노원구청 공무원 등	
13:00~13:30	노원구의회 의장 간담회 ·대상: 노원구의회 의장 ·내용: 노원구의회 소개 및 공동주택 정책연구 협력방안 논의	
14:00~15:00	서대문구 이동	
15:00~16:10	공동주택정책연구회 실무 간담회	
16:10~16:30	서대문구의회 복귀 및 해산	

3 노원구 현장방문 활동 결과

□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관계자 간담회

- 일시: 2024년 5월 21일(화) 10:00~11:30
- 장소: 노원구청 ·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사무실
- 참석자: 총 15명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임원진(4명), 공동주택지원과 공무원(4명)
 서대문구: 연구회 소속의원(3명), 공동주택지원팀(2명), 정책지원관(2명)
- 주요내용
 노원구청 1층 로비 및 관련 시설 견학
 아파트협의회 운영 방식, 주요 사업 및 지원 정책 소개
 질의응답 및 상호 토론 진행
- 아파트협의회 소개 요약
 - 2018년 조례 제정 전부터 아파트협의회는 있었으나 조례 제정 후 행정 지원이 강화됨.
 - 현재 노원구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총 177개 단지이며 각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동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 19개 행정동 단위의 동협의회가 동별로 운영되며, 동협의회 회장이 모여 구협의회가 구성됨. (작년까지는 6개 지역협의회로 운영하다가, 올해 초부터 동협의회로 변경함)
 - 구협의회는 구청에서 실무 지원(SNS 관리 등)하며 동협의회는 동주민센터(동장)에서 실무 지원함.
 - 구협의회 주관 축제행사 등이 있고, 그밖에 단지당 연간 5~6만원 간담회비 지원하며, 보조금이기에 정산 절차 필요함.
 - 올해 협의회 지원예산은 총 4천만원임.

□ 노원구의회 의장 간담회 및 시설 견학

- 일시: 2024년 5월 21일(화) 13:00~14:00
- 장소: 노원구의회 의장실 및 의회 회의장
- 참석자: 총 10명
 노원구: 김준성 의장, 의정팀(2명)
 서대문구: 연구회 소속의원(3명), 공동주택지원팀(2명), 정책지원관(2명)
- 주요내용
 노원구의회 조직 구성 및 운영방식 소개
 의회 간 협력 방안 논의
 회의장 시설 및 프롬포터 시스템 견학

□ 공동주택정책연구회 실무 간담회

- 일시: 2024년 5월 21일(화) 15:00~16:10
- 장소: 로텐드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25길 82)
- 참석자: 총 6명 - 연구회 소속의원(3명), 정책지원관(2명), 주무관(1명)
- 주요내용
 현장 방문 소감 공유
 향후 연구회 활동 계획 점검 및 토론
- 논의결과
 - 현장방문을 통해 배운 것이 많으며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음. 특히 노원구의 환대해주는 문화가 인상적임.
 - 임기 내에 서대문구 아파트협의회를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연구회 소속의원 3인이 공동발의(강민하 대표발의)하기로 함.
 - 향후 일정은 6월말 비회기 기간에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 교육을 받고, 이후 서대문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함.

주제별 논의 사항

1. 아파트협회의회의 긍정적 효과

아파트협의회 설립 이후,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단톡방을 통해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어 정보 전달이 용이해짐. 이전에는 일부 관리사무소장이 신규 사업 추진을 회피하며 공문을 공유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나, 협의회 구성 이후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됨. 또한, 동대표 후보 부족 문제도 협의회 활동으로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며 자연스럽게 해결됨.

2. 입대의 회장의 연령대와 활동 적극성

입대의 회장의 연령대가 활동 적극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지역 특성에 따라 젊은 세대보다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3. 입대의 회장 임기 통일과 연속성 유지

입대의 회장의 임기가 단지별로 달라 연합 활동의 연속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함. 이에 대해, 임기를 통일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자연스러운 인수인계 과정을 통해 활동이 지속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옴.

4. 협의회 사무국장의 근무 형태

협의회 사무국장은 비상근으로 활동하며, 행정적으로 인건비 지원은 없고 보조금 형태로 간담회비만 지원받고 있음.

5. 협의회 사업과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간 중복 여부

협의회 사업과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이 중복될 가능성을 점검했으나, 실제로는 별개의 사업으로 중복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음.

6. 아파트 플래너 운영 여부

노원구에서 아파트 플래너가 운영되고 있으며, 2명의 플래너가 활동 중임. 이들은 보조금 정산시스템 사용법 등 담당 공무원의 지원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고 시작함.

7. 협의회 수익사업 가능성

협의회에서 축제와 같은 행사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수익금은 연말에 전액 기부하고 있음.

8.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과의 차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설정된 사례를 검토함. 관리규약 준칙 준수 여부가 공동주택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준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며,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2-2. 전문가교육

1 제1회 전문가 교육

□ 개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법령, 조례, 관리규약 준칙 및 주요 민원 해결 사례를 심도 있게 학습하여 연구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함.

○ 일시: 2024년 6월 24일(월) 14:00~17:00 (3시간)

※ 당일 사정으로 인해 계획시간보다 1시간 앞당겨 진행

○ 장소: 서대문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

○ 참석자: 총 6명 - 연구회 소속의원(2명), 정책지원관(4명)

○ 강사: 이기남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소장

○ 강의주제

공동주택 관리법, 서울시·서대문구 관련 조례, 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 관련 주요 민원과 해결 사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

○ 주관: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공동주택정책연구회』

○ 강사 주요이력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소장 / 경제학 박사
주택관리사 / 주거복지사 / 평생교육사
KAB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위원
서울시 아파트 실태조사 전문위원
지자체(서초·성동·용산구 등) 공동주택 전문위원 / 분쟁조정위원
지자체 입대의/선관위 윤리 운영교육 전문강사
명지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겸임교수

주제별 논의 사항

1. 동대표 신청 과정에서의 귀책사유

동대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접수 마감 30분 전에 구비서류 미비 통보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접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이는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판단됨.

2. 세대별 투표권 행사에 관한 문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세대별 1표만 행사할 수 있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전원에게 선거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세대주가 투표 전에 자녀가 대신 투표한 사례에 대해 논의함. 이 문제는 관리규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 선거명부가 세대주 1인으로 명확히 지정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입주자 명부 전체를 투표권자로 규정한 경우 문제되지 않음.

3. 관리규약 준칙 변경 가능 범위

관리규약 준칙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참조용으로 사용되며 변경이 가능함. 그러나 자율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주로 숫자(인원, 날짜, 비율, 금액) 등의 조정 수준에서 변경 가능함.

4. 동대표 임기 통일 방안

공동주택마다 다른 동대표 임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통일하려는 방안을 검토함. 이를 실현하려면 관리규약 준칙보다 강제력 있는 규정이 필요하며, 관리규약 준칙은 광역시 권한으로 자치구에서 별도로 권고안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후속 조치

전문가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공동주택 관리 정책 개선안 마련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를 통한 연구회의 지속적 발전

□ 현장 사진



2 제2회 전문가 교육

□ 개요

서대문 관내 주거현황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미래 주거경제 문제를 학습하여 연구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함.

- 일시: 2024년 11월 8일(금) 10:00~13:00
- 장소: 서대문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
- 참석자: 총 25명- 연구회 소속의원(3명), 정책지원관(6명), 주무관(16명)
- 강사: 진미운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 강의주제: 나이 들어가는 공동주택,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주관: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공동주택정책연구회』
- 강사 주요이력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박사

한국주택학회 회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심의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소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감사위원 및 자체용역평가심의위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사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선임연구위원

전) 미 워싱턴주립대학교 Visiting Scholar

주요 저서 및 논문: "쪽방의 개념 재정의와 실증적 탐색",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거 현안과 미래 정책 대응 방향" 등

주제별 논의 사항

1. 서대문구 아파트 시장의 변화와 개발 유인

서대문구의 저렴한 분양가를 개발 유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개발자와 투자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함. 특히, 서대문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2.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재건축 필요성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에 있어 주요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기존 주거 공간이 현대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조됨.

3. 전세 가격 하락과 역전세난 문제

전세 가격 하락 및 역전세난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함.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를 강화하여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세난과 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함.

4. 서대문구 주거 시장의 전반적 문제 해결

주민 주거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노후 주택 관리 및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후속 조치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서대문구의 공동주택 관리 및 정책 개선안 마련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를 통한 지속적 연구 추진

□ 현장 사진



2-3.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

① 제1회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

□ 개요

- 일시: 2024년 10월 10일(목) 19:00~21:00
- 장소: 홍제센트럴아이파크 관리동 3F
- 내용: 공동주택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 참석자: 총 11명
연구회 소속의원(3명), 정책지원관(2명), 전문가(1명), 아파트관계자(5명)

□ 주요 주제

- 전기차 충전소 설치율과 화재 대책 방안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방안
-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비 절감 및 공동주택 관리 규약 개정 방안

□ 결과 요약

- 아파트 관리규약에 주민 요구사항 조항 개정 필요
- 구청의 다양한 지원제도 홍보 및 주민 의견수렴 협조 요청
-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통해 정책 반영 필요

□ 현장 사진



주제별 논의 사항

1. 공동주택 관리 규약의 문제점

현행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 아파트 상황과 맞지 않는 점이 많아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구청의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와 주민 간 소통을 증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루어짐.

2. 관리사무소 운영과 공동주택관리법 문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명시된 인수인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연속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인계 절차 강화, 관리 인력의 급여 및 업무량 불균형 해소,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의 개선 방안이 논의됨.

3. 아파트 단지 통로 개방 문제

인근 주민 민원으로 인해 아파트 통로 개방이 논의되었으나, 안전 문제와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통로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안전 규정 마련과 보수 시설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이루어짐.

4. 용벽 석축 기울임 및 하자 처리 문제

소송 중인 용벽 하자 문제와 관련해 즉각적인 보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처리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됨. 하자 보상 조건을 명확히 검토하여 손해가 심화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강조됨.

5. 입주자대표 선거 및 궐석 문제

입주자대표의 잦은 교체로 인해 회의 정족수 미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선거 규정을 개정하여 대표 해임 사유를 명확히 하고, 동대표 선출 시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궐석 문제를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됨.

6. 관리비 절감 방안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절감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관리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단지별 관리비 평균을 참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비 집행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논의됨.

7.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화재 대책

전기차 화재 위험성으로 인해 충전시설 설치가 중단된 사례가 논의됨. 충전시설 설치 전에 철저한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방화벽 설치 등의 안전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루어짐.

8. 구청의 지원 및 예산 확보

구청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정책의 적절성과 관련해, 공공의 이익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 특히, 노후 아파트 보수를 위한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결론

공동주택 관리의 주요 문제를 주민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였음. 관리 규약 개선, 안전 대책 강화, 장기수선충당금의 투명한 운영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을 확인하였으며, 구청과 주민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적 대응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서대문구 공동주택 정책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음.

2 제2회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

□ 개요

- 일시: 2024년 11월 7일(목) 13:00~15:00
- 장소: 대현동 럭키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
- 내용: 공동주택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 참석자: 총 10명
연구회 소속의원(2명), 정책지원관(1명), 전문가(1명), 아파트관계자(6명)

□ 주요 주제

- 철도청 부지의 활용과 주차공간 확보
- 공동주택 지원금 확대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비 절감
- 안전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등 주민 편의 시설 향상

□ 결과 요약

- 구청과의 협조 후 주민 의견 수렴 및 협의안 도출
- 예산 확보 및 현행 관리체계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조례 개정안 발의
- 안전시설 설치 조사 및 비용 산출 후 필요성 제안

□ 현장 사진



주제별 논의 사항

1. 철도청 부지의 주차장 활용 문제

철도청 부지의 사용 제약으로 인해 주민들이 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청과 구청 간 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일부 부지를 주차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짐. 철도청 부지의 장기 임대나 일부 구역의 주민 주차용 개방 같은 방안을 검토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관련 조례 제정 등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주민 편의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됨.

2.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

기존 주차 공간이 비탈면에 위치해 이중 주차가 어려운 데다 건축 허가 당시 주차 기준을 충족했으나 현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탈면을 활용한 주차 공간 확장, 조정 축소를 통한 추가 주차면 확보 등 설계 개선 방안이 제안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들과 구청이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하며, 구청의 지원을 통해 주차장 확충과 같은 조치를 구체화하는 조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

3. 공동주택 지원금 부족

구청이 제공하는 시설 노후화 지원 예산이 부족하여 신청한 모든 공동주택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내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예산을 체계적으로 확대 하고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됨. 특히, 구청이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필요한 노후시설 보수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산 증액 계획이 필요하며, 지원금을 통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됨.

4. 아파트 열선 공사 관련 비용 부담

경사도나 언덕길에 열선을 설치하여 미끄럼 방지 효과를 확보해야 하지만, 주민들이 높은 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구청의 일부 공사비 지원과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옴.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통행로에 열선을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러한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구청과 주민 간의 협력과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

6. 마을버스 운영 문제 및 적자

마을버스가 적자 상태로 인해 배차 간격이 길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 도입 검토를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도입과 배차 간격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구청의 협력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됨.

7. 횡단보도 신호등 및 CCTV 설치 요청

이대 정문 학교 인근과 같은 차량 통행이 많고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는 지역에서 신호등과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민 요구가 있었으나, 구청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설치 필요성과 위치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확보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강조됨.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안전 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함.

8. 장기수선충당금 활용과 관리비 절감 방안

장기수선충당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짐. 주민들이 관리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도입하며, 구청의 행정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됨.

9. 후속조치

- 철도청 부지 활용 협의 철도청과 구청 협의를 통해 주차 공간 확보 방안 마련. 주민 의견 수렴 후 협의안 도출.
- 공동주택 지원금 증액 예산 심의 시 증액 안건 제출 및 수요 산출 자료 준비.
- 경로당 시설 보수 예산 증액 노후 경로당 실태 조사 후 예산 증액 필요성 제시 및 지원 요청.
- 장기수선충당금 투명성 강화 관리체계 분석 및 전문가 의견 반영한 조례 개정안 발의.
- 열선 공사 지원 확대 설치 기준 분석 후 지원 확대 방안 검토 및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 마을버스 준공영제 검토 구청과 협의하여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을 분석하고, 예산 확보 방안 마련.
- 신호등 및 CCTV 설치 협의 설치 위치와 비용 조사 후 구청에 설치 필요성을 제안하고 협의 추진.

결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6명의 질의를 통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 속 불편과 안전 문제에 대해 깊이 논의하였으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할 수 있었음. 철도청 부지를 활용한 주차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구청과 철도청 간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함. 또한, 공동주택 지원금 부족 문제에 대해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노후 경로당 시설 보수와 냉난방기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제안함. 장기수선충당금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강조되었으며, 열선 공사 지원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검토됨. 마을버스 운영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이대 전문학교 인근에 신호등 및 CCTV 설치를 통해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됨. 이번 논의는 주민들의 불편과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3 제3회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

□ 개요

- 일시: 2024년 12월 10일(화) 16:00~19:00
- 장소: 인왕산 어울림아파트 101동 관리소 대표회의실 1F
- 내용: 공동주택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 참석자: 총 10명
연구회 소속의원(2명), 정책지원관(1명), 전문가(1명), 아파트관계자(6명)

□ 주요 주제

- 아파트 연합회를 통한 교통 체계 개선 방안
-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동주택 정책 마련
- 지하 주차장 유휴 공간 활용 방안과 건축법 및 소방법 문제 해결 방안
-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
- 지역 주민들의 민원 처리와 구청의 역할

□ 현장 사진



주제별 논의 사항

1. 교통체계 개선 및 아파트 연합회 필요성

통일로변 교통신호체계 개선과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연합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연합회를 통해 주민 의견이 통합적으로 제기되고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연합회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아있음. 전문가들은 연합회 설립 전 법적·행정적 근거를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2. 주민 의견 수렴 및 공동주택 정책 개선

장기수선충당금의 투명한 활용, 하자소송 시 잡수의 사용 금지, 관리규약 준칙 개선 등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짐. 입주자대표회의와 동대표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도모해야 함. 전문가들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생활 밀착형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함.

3. 지하 주차장 유휴 공간 활용 및 법규 문제

지하 주차장의 유휴 공간(비트공간)을 창고나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됨. 그러나 건축법과 소방법 등 법적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음. 전문가들은 용도 변경 전 전문가 진단과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건축법·소방법을 충족할 경우 조례 개선 등을 통해 합법적 사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함.

4.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법적 대응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폭력적 언행 문제가 심각해 소음 측정기 도입, 분쟁 조정기구 활성화, 관련 조례 개선 등이 필요함. 동의서 미제출 시 소음 측정이 어려운 등 현실적 한계도 존재함. 전문가들은 소음 문제는 심리적 요인도 크므로 정신건강 전문가 협력을 고려해야 하며, 소음측정기 대여, 분쟁 조정기구 확충, 조례 개선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함.

5. 민원 처리와 구청 역할

주민들은 교통, 시설 개선, 층간소음, 전기차 충전소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함. 구청은 민원 처리자로서 역할을 넘어 문제 발생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예산 부족과 세수 감소로 인한 한계가 존재함. 전문가들은 구청이 단순 민원 접수자를 넘어 매개자로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합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함.

6. 후속조치

- 아파트 연합회 예산 확보 방안 모색 연합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 지원책 검토.
- 장기수선충당금 운용 개선 방안 전문가 자문을 통한 장기수선 계획 수립 및 적정 부과로 관리비 절감과 시설 유지관리 안정화.
- 층간 소음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소음 측정기 도입, 분쟁 조정 기구 활성화, 전문가(심리상담) 투입 등 종합적 대응책 마련.
- 지하 주차장 유허 공간 합법적 활용 검토 건축법·소방법 등 제도적 제한사항 검토 후 조례 개선 및 합법적 용도변경 방안 연구.
- 공동주택 관리 관련 조례 개선 검토 하자소송 시 압수익 사용 금지, 항목별 장충금 사용 주민투표 가능성 등 제도 개선 과제 검토.

결론

이번 회의를 통해 아파트 생활환경과 주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점이 제기되었으며, 주차 환경 개선부터 장기수선충당금 투명성 확보, 층간 소음에 대한 제도 정비, 지하 주차장 유허 공간 활용, 그리고 구청의 적극적인 민원 대응까지 광범위한 개선 과제가 논의됨. 강민하 의원과 이진삼 의원은 주민 의견 반영, 전문 자문 활용,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를 통한 실질적 해결책 마련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였음.

특히, 아파트 연합회 구성을 통한 교통 체계 개선이나, 관리규약 보완을 통한 하자 소송 및 장기수선충당금 문제 해결 등은 각종 이해관계자를 한데 묶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재확인하였음. 구청은 단순 민원 접수자에서 나아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매개자가 되어, 주민 편의 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이번 논의 결과는 향후 의회 입법 활동과 정책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됨.

4 제4회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

□ 개요

- 일시: 2024년 12월 19일(목) 17:00~20:00
- 장소: 독립문 삼호 아파트 관리소 회의실
- 내용: 공동주택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 참석자: 총 10명
연구회 소속의원(2명), 정책지원관(1명), 전문가(1명), 아파트관계자(6명)

□ 주요 주제

-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따른 화재 우려와 설치 의무화 유예 필요성.
- 삼호아파트 중앙난방 철거 후 유허공간 활용 방안.
- 건물 손상 방지를 위한 나무 전지 작업과 체계적인 조경 관리.
-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와 민원 처리비용 개선.
- 30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과 예산 확보.

□ 현장 사진



주제별 논의 사항

1.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

최근 전기차 화재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충전소 설치 의무화 정책의 유예 필요성이 대두됨. 특히, 지상 주차장을 활용한 충전소 설치를 위해 용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됨.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전소 주변에 열 감지 시스템과 화재 예방 설비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구청 차원에서 각 아파트 단지에 관련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할 필요성이 강조됨. 더불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2. 삼호아파트 노후화 및 편의시설 개선

30년 이상 된 삼호아파트는 노후화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난방 철거 이후 발생한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커뮤니티 시설 설치와 같은 주민 편의시설 확충이 제안되었으나, 높은 설치 비용과 법적 제약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공용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위탁 운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약을 완화하고, 초기 투자 대비 수익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주민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맞춤형 시설 설치와 함께 구청 차원의 예산 지원 및 지속적인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함.

3. 조경 및 수목 관리

아파트 단지 내 조경 및 수목 관리가 건물 구조 손상과 안전 문제를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나무의 뿌리로 인해 도로와 건물 구조물이 손상되고, 가지가 건물 내부로 침입하는 등의 문제가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정기적인 전지 작업과 체계적인 조경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관리 비용 부담과 주민 간 의견 충돌로 인해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전문 업체를 통한 관리와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구 예산 지원을 통해 관리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위험 수목 제거와 노후 아파트 단지 우선 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경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4. 공사 현장 민원 처리 및 피해 보상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지속되면서 민원 처리 절차의 복잡성과 피해 보상 기준의 불투명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명확한 보상 기준 마련과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사전 주민 설명회 개최를 통해 피해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피해 보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온라인 민원 시스템 도입과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며, 주민-시공사-구청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 체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5. 노후 수도관 문제 해결

30년 이상 된 수도관에서 발생하는 녹물과 누수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기존 법령에 따른 교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결이 지연되고 있음. 수도관 교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도관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단계적 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서울시 수도사업소와의 협력을 통해 예산 집행을 신속히 진행하고, 교체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강조됨. 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수도관 교체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함.

6. 수색-광명 고속철도 변경안 및 인근 아파트 재개발 피해 보상

수색-광명 고속철도 공사 경로 변경과 인근 아파트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등의 환경적 피해와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건물 구조 손상 가능성, 재개발로 인한 대체 주거지 부족, 보상 기준의 불투명성에 대해 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체계 마련을 요구함. 환경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벽 설치, 먼지 차단 시스템 도입, 진동 감지 센서 설치가 필요하며, 재개발 과정에서는 주민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구청과 시공사 간 협력을 통해 임시 거주지 지원, 의료비 보상, 생활 안정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피해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강조됨.

7. 후속조치

-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 화재 안전 우려와 설치 의무화로 인한 주민 반발 및 지상 주차장 용도변경 법령 개선 필요성.
- 노후 아파트 관리 및 편의시설 개선 유휴공간 활용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과 제도적 개선 필요성.

- 조경 및 수목 관리 외관 및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적인 조경 관리와 주민 의견 수렴 방안 필요성.
- 공사 현장 민원 처리 및 피해 보상 공사 피해 보상과 민원 절차 간소화 및 관리 투명성 강화.
- 노후 수도관 문제 해결 녹물과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 및 교체 계획 수립 필요성.

결론

주민, 전문가, 관계자가 함께 모여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특히, 지역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확인함.

전기차 충전소 설치, 노후 아파트 관리, 조경 및 수목 관리, 공사 현장 민원 처리, 노후 수도관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관계자의 의견을 교류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함.

이러한 논의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발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함. 특히, 주민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정책 마련과 실행이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확인함.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언들은 향후 구정 운영과 의정 활동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임. 서대문구 공동주택 연구회는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안을 만들어 가며,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도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할 것임. 향후 논의된 바를 숙고하여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

Ⅲ. 활동후기

3-1. 강민하 대표 의원

3-2. 이진삼 간사 의원

3-3. 서호성 의원

1 강민하 의원



서대문구 공동주택정책연구회 활동을 마치며

2024년 한 해 동안 서대문구 공동주택정책연구회 대표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과제를 깊이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관계자, 전문가들과의 소통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번 연구회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꼈던 경험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로 인한 화재 위험 문제, 층간소음 갈등, 그리고 노후 아파트의 유희 공간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제도적 접근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입주민들의 요구와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노원구 현장 방문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선진적인 아파트 협의회 운영 사례를 접하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델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노원구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체계적인 제도는 서대문구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구에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공동주택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회 활동을 통해 느낀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주민 참여의 중요성입니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 입주민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가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서대문구의 공동주택 정책이 단순히 행정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들과의 협력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회 활동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연구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입법 활동을 이어가며, 공동주택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이진삼 의원

공동주택 문제 해결의 첫걸음을 떼며



2024년, 서대문구 공동주택정책연구회에서 활동하며 우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회 활동은 단순한 정책 연구를 넘어,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간담회와 전문가 교육은 제게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은 단순히 행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로 인한 화재 위험,

노후 아파트의 유지 보수 문제, 층간소음 갈등 등은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를 직접 듣고 논의하며, 실질적인 개선책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교육은 저의 정책적 안목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관리규약의 준칙과 현실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이를 조화롭게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낀 점은,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들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의 투명한 운용과 입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원구 현장 방문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노원구의 아파트 협의회 운영 사례는 우리 서대문구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구청과 협력하며 공동체를 강화해 나가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서대문구에서도 주민 주도의 공동체 운영 모델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연구회 활동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없이는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제안된 개선 방안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활동을 함께해 준 연구회 동료 의원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을 함께 걸어하겠습니다.

3 서호성 의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으로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대표의원인 강민하 의원을 필두로 이진삼 의원과 함께 참여하게 된 의원연구단체입니다.

서대문구는 저층 주거지가 많은 지역이었으나 점차 아파트 비율이 늘고 있어 관련 정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서대문구 공동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연구회에서는 우수지역 현장 방문,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 전문가 초빙 교육 등 총 3가지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유익했던 시간은 노원구에 방문하여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난 시간입니다. 노원구는 아파트 협의회 구성·운영 조례를 통해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도 주민 중심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주택 문제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 간담회는 저에게 현장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 준 자리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불투명한 관리비, 신축 아파트의 하자보수, 노후화된 시설 등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배차 간격 등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입법적 접근과 행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사안이기때, 구청 담당 부서와 함께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동주택 관련 법령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관리규약 준칙 등을 학습하기도 하였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하면 관리규약에 따라 해결하는데 관리규약 내용이 미비하여 분쟁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관리규약 준칙은 광역시인 서울특별시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어 서대문구 차원에서 별도의 권고안 제공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전달할 수 있는 주민 협의체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서대문구의 공동주택 정책이 주민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V. 보도자료

4-1. 2024.05.29.(수) 배포

4-2. 2024.07.05.(금) 배포

4-3. 2024.10.15.(화) 배포

4-4. 2024.12.18.(수) 배포

1 2024. 05. 29. (수) 배포

서대문구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만나 다양한 현안 논의해

- 첫 대외활동으로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노원구의회' 방문 간담회 가져



서대문구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의원 강민하)는 아파트협의회를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있는 노원구에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서대문구 공동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민하 대표의원을 필두로 이진삼, 서호성 의원이 함께 모여 올해 2월 활동을 시작한 신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에 연구회는 첫 번째 대외활동으로 지난 5월 21일(화)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사무실에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것이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임원진을 직접 만나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직 구조, 주요 사업, 행정 지원사항 등 파악했다. 이어서 실제 운영에서 생긴 문제나 개선점, 서대문구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특히 이 간담회에는 서대문구 주택과와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 모인 자리로 관련 사업 사례는 물론 장,단점 등 각 구가 가진 업무에 대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이었다.

한편, 이날 연구회 의원들은 노원구의회 김준성 의장과 면담을 진행, 기초의회 간 정보를 공유하고 활발한 교류를 약속하기도 했다.

서대문구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 강민하 대표의원은 “노원구 관계자들이 잘 준비해 주셔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임원진들의 열정과 노원구청의 지원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며 “연구회 소속 의원 모두 힘을 합쳐 임기 내에 서대문구 아파트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6월 중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 등을 학습하고 이어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 정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연구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2 2024. 07. 05. (금) 배포

서대문구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 공동주택 분야 전문가 초청해 교육 실시

-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간담회 이어 공부하는 의원연구단체 모범 보여
- 올 한해 공동주택정책연구 활동 활발히 이어갈 것



서대문구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의원 강민하)는 지난 6월 24일 서대문구의회의정연구실에서 ‘공동주택 전문가 초청 교육’을 열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공동주택 분야 전문가인 이기남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소장을 초빙,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 준칙 등을 배우고 관련분야 최신 자료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는 지난 5월 열린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관계자와 간담회 이후 연구회 의원들에게 꼭 필요한 사안들을 공부하고 더 깊이 알아가고자 특별히 마련한 것이다.

이에 이날 교육은 공동주택정책연구회 소속 의원과 담당 정책지원관이 함께 참여, 3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1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강의를, 2부는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와 공동주택 관리규약 해석과 적용 등을 알아보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교육을 마치며 서대문구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 강민하 대표의원은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주택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진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연구회 활동을 통해 공부하는 서대문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강민하 대표의원을 필두로 이진삼, 서호성 의원이 함께 활동하는 의원연구단체로서 이후에도 공동주택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공동주택 정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3 2024. 10. 15. [화] 배포

서대문구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 구민 곁으로~ 홍제센트럴아이파크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 열어

- 구민과 직접 소통하는 공동주택정책연구회, 첫걸음 나서
- 공동주택 입주민과 현장 목소리 듣는 시간, 실질적 지원책 마련하고자



서대문구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의원 강민하)는 지난 10일, 홍제센트럴아이파크 주민들과 만나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연구단체인 공동주택정책연구회가 아파트 입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구민들이 전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자 특별히 도입한 현장 간담회이다.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서대문구 공동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민하 대표의원을 필두로 이진삼, 서호성 의원이 함께 폭넓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간담회 역시, 아파트 입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구민들이 가진

고민과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 공동주택 관련 맞춤형 행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 중 하나이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의원들과 입주자대표회 임원들, 관리사무소장은 물론 박기권 다우 시스템 대표가 참석해 공동주택이 가진 다양한 현안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장기수선충담금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 등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불편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현장에 참석한 이진삼 의원은 “입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현장에 맞는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며,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또, 서호성 의원은 “입주민의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서대문구에 보다 나은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동주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공동주택연구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입주민들의 의견을 부서와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구민들이 요청한 사안들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 발의 등 중장기적 연구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공동주택정책연구회 강민하 대표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환경 개선’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구민과 함께 나가는 첫 걸음이 되었다”며 “입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오는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공동주택 단지를 순회하며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4 2024. 12. 18. (수) 배포

현장 목소리 듣고, 전문가에게 배우는 연구 활동 지속 서대문구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 대내외 활동 ‘눈길’

-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아파트 연합회와 장기수선충담금 개선, 생활 밀착형 정책 제안



서대문구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의원 강민하)는 ‘서대문구 공동주택 정책 방안’을 찾고자 대내외적으로 눈에 띄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구회는 월별로 관내 아파트 입주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를 열고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 특강을 여는 등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서대문구 공동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민하 대표의원을 필두로 이진삼, 서호성 의원이 함께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연구회는 <10월 홍제센트럴아이파크>, <11월 대현동 럭키아파트>에 이어 <12월 인왕산 어울림 아파트> ‘찾아가는 공동주택 간담회’를 개최 한 바 있다.

이 같은 현장 간담회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구민들이 가진 고민과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려는 노력 중 하나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마다 가지고 있는 현안이 다르고, 주민들의 고민과 민원 역시 다양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결안을 찾아 나가는 ‘주민 맞춤형 행정 지원’을 펼치고자 함이다.

이에 <11월 대현동 럭키아파트> 간담회에서는 철도청부지 주차 공간 활용은 물론 노후 아파트 재건축 지원, 위험 시설 개보수, 이대 상권 주변 인프라 개선 등 현재 럭키아파트 주민들이 가진 각종 사안들을 듣고, 발전적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서 <12월 인왕산 어울림 아파트>와의 만남에서는 아파트 연합회를 통한 교통 체계 개선, 장기수선충당금의 투명한 운영, 지하 주차장 유희 공간 활용, 층간 소음 문제 등을 다양하게 조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연구회 의원들은 아파트 연합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 주민 간 의견을 통합적으로 조율하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연합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구청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의 적극적인 매개자로서 나서야 하며 전문가 자문 활용, 사전 홍보, 정보 공유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 체계 조성도 공론화 했다.

한편, 연구회는 지난 11월에는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진미윤 교수를 초청, 「나이 들어가는 공동주택,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 학계 동향 파악을 통해 학문적 역량 역시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 강민하 대표의원은 “연구회의 대내외적 활동을 통해 서대문구 공동주택 정책 개선 방향성을 찾고 주민과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시간이었다”며 “입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 공동주택 정책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2024. 12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02-330-81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6길 49(연희동) 3층